

'편백숲의 고장' 장성군, 숲해설 운영

오는 11월까지 숲 있는 관광·휴양명소에서도 설명 전문 숲해설사가 꽃, 나무, 곤충 등 '숲속 이야기' 전달



장성군이 오는 11월까지 숲 해설을 운영한다. 장성지역 주요 산은 물론 장성호 수변길, 산림욕장, 트레킹길 등 숲이 있는 관광·휴양명소에서도 전문 숲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장성은 숲 자원이 뛰어난 지역으로 손꼽힌다.

다. 죽령산, 백암산, 불태산 등이 기다란 성처럼 어깨를 맞대며 감싸고 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절반이 울창한 숲이 61%가 남아 있다. 특히 전국 최대규모 인공 조림지인 죽령산 편백숲은 산림청이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가치가

높다. 50~60년생 편백나무, 삼나무 등이 1150헥타르(ha) 규모로 울창한 상록수 숲을 이루고 있다. 총 4개 구간의 등산로가 있으며, 코스당 1시간 30분에서 3시간 가량 걸린다.

장성호 수변길도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다. 호수를 중심으로 좌측이 출렁길, 오른쪽이 숲속길이다. 출렁길은 색다른 매력을 지닌 두개의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고, 숲속길에선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풍경이 기다린다.

이러한 숲의 매력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숲 해설' 등이다. 숲해설가와 함께 자연을 거닐며 숲에서 만난 꽃과 나무, 곤충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접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숲을 바라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자연 체험의 기회가, 성인에게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치유 여행이 된다. 장성군에선 지난해 6~12월에도 숲해설 서비스를 운영해 약 2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해설이며, 예약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010-9085-4848)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중 군수는 "장성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숲 해설 서비스가 자연의 소중한 가치와 보존 가치를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담양군 담양읍, 에코센터서 이장회의 개최 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 현안 홍보·담양에코센터 견학 함께해

담양군 담양읍(읍장 강성령)이 지난 3월 11일 담양에코센터에서 3월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장회의에서 담양읍은 마을 이장 55명에게 5월 3일 개최 예정인 담양군민의 날 기념행사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독려 등 다양한 군정 및 읍정 현안을 홍보했으며, 회의가 끝난 후 담양에코센터 시설 견학을 함께했다.

담양에코센터는 메타세쿼이아로수길 내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개구리생태공원 그리고 에코교육관으로 구성된 다양한

탐구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강성령 담양읍장은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 담양읍의 발전에 힘써주시는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읍에서는 앞으로도 이장회의 및 각종 사회단체 회의 추진 시 안내 주요 관광지나 공공시설물 등을 순회하며 군정의 방향성을 알리고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급경사지·산사태 위험지 등 173개소

나주시는 해빙기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 공사현장(토목·건축), 교량, 옹벽, 문화재, 노후 공동주택 등 17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중이다.

점검 활동은 안전재난과 등 소관 부서별 업무 지침에 따라 실시중이며 특히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낙석 방지망이나 낙석방지책 등 보강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피해 정도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해빙기를 맞아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 되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쌀 적정 생산 대책사업 추진

전략 작물 직불제·논 타작물 지원·벼 감축 협약 사업 신청·접수

화순군은 13일 쌀 적정 생산 대책사업을 통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논·농·가꾸쌀 등 논 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순군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168ha이다. 추진 중인 대책사업은 ▲전략 작물 직불제 지원사업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이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경작하는 논지에 대하여 면적은 0.1ha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하계작물의 경우 가루쌀·두류는 200만 원, 옥수수는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이다.

아울러 동계작물로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가루쌀·두류를 재배하면 100만 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전략 작물

직불제에서 제외된 식량작물, 녹비 작물 등을 지원하며 전략 작물 직불제를 포함하여 군비 사업으로 출릿기(단작)의 경우 250만 원, 이모작의 경우 300만 원까지 보전해 준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4년 타작물 재배를 계획하는 경우와 2023년 전략 작물 또는 감축 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 재배를 이어가는 필지에 대하여 공공비축미 추가배정을 성과급으로 제공한다.

두류의 경우 ha당 150포, 조사료의 경우 ha당 300포의 성과급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가루쌀은 협약 품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고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제14기 '곡성명품농업대학' 귀농귀촌 과정 개강

27명 교육생 위한 체계적인 영농 기술과 정착 지원 프로그램 제공



곡성군은 지난 3월 11일,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대청마당에서 교육생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곡성명품농업대학 귀농귀촌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에는 2월 13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총 27명의 교육생이 입학했다. 교육은 귀농귀촌을 주제로 하며, 신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영농정착 실무능력 및 기초 영농 기술 강화에 중점을 둔다.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이번 14기 교육생들에

게 25회의 이론 교육과 약 2차례의 선진지 견학을 포함한 총 104시간의 현장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품질의 향상과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서연남 소장은 "이번 교육에 충실히 참여해 입학생 모두가 곡성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인재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신규 농업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이 교육이 신규 농업인들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곡성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양해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